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C O N T E N T S



## 이용자 수기



To Sir with Love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사랑을) 06

강원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경남 님



with 人 (사람과 함께하다) 14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최혜민 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나의 영웅 19

경북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민주 님

워킹맘에게 기회의 날개를 달아준 아이돌봄서비스 25

경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소라 님



### 내 생애 최고의 선택 34

부산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주희 님

### 저희 집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십니다. 39

대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선주 님

### 우리 아이 할머니는 셋!!! 43

서울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 민 님

### 나의 반쪽이 되어준 아이돌봄서비스! 50

대구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유명주 님

### 사랑하는 나의 멘토 55

인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미진 님

### 아픈 엄마에게 온 선물 62

서울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정연 님

## 아이돌보미수기★



### 서준이와 함께한 여정들... 68

대전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 | 김미선 님



### 내 등에 날개를 달다 76

인천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효순 님

### 매일 매일이 축복입니다 81

충북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옥연 님



### 사랑하는 아이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88

서울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순 님

### 아이돌보미, 인생 2막에서 만난 나의 첫 사랑 93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은경 님





# 이용자 수기<sup>★</sup>



To Sir with Love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사랑을)

강원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경남 님





## To Sir with Love

(아이☆돌보미☆선생님께 사랑을)



강원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경남 님



10월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찬바람이 살갗을 차갑게 만든다.

새벽부터 잔뜩 찌푸렸던 하늘이 오후에서야 부슬부슬 단비가 내려 극심한 가뭄이 조금이나마 해갈되듯 모처럼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듯하다.

지금은 이 날씨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리고 있을 만큼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은 힘든 상황의 나날이었다.

사정상 어른들의 큰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며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하는 곤경에 처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산후조리를 하며 기력을 회복할 시간도 잠시뿐,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지라 일자리를 찾아 일해야만 했지만 8살, 5살, 갓난아기 세 명 애들이 문제의 큰 벽이었다.

막막한 나날 실의에 빠져 보냈고 원형탈모까지 생겨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도 없어 점점 삶에 회의를 느끼며 있다가도 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 이 상황을 극복할 온갖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아 유형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바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거친 후 갓난아이는 종일제, 두 아이는 시간제로 병행이용 신청을 하고 돌아왔다.

며칠 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연계되어 우리 가족과 인연을 맺기 시작되었다.

엄마하고만 지내던 아이들은 처음 오신 낯선 선생님의 돌봄을 받으며 거리감을 두고 부끄럽고 쑥스러워 말도 못하며 빠죽거렸다. 이런 아이들에게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조심스레 먼저 친근감 있게 말을 건네며 손을 내밀어 주신 덕에 아이들은 차츰 마음을 열어갔다.

난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인데 선생님은 다양한 놀이 활동은 물론이고 힘들어하던 기초학습 등 여러 모로 아이들이 싫증나지 않게 마음마저 읽어주시며 보듬어주셨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는 돈 벌기에 연연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마다치 않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잘 돌봐주셔서 나는 조금이나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새벽까지 치킨 집을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이젠 엄마인 나보다 돌보미 선생님을 더욱 따라 큰아이 둘은 “선생님 언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집에 살면 안돼요?, 선생님은 우리랑 어떤 사이예요?, 가족 아니예요?”등등 아이들은 자기를 예뻐하는지 스스로 더 잘 안다고...

그때마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우리 집에 사시면 선생님 가족들이 슬퍼하실 텐데”하며 설득시키고 그런 나 역시도 고향이 부산이라 홀로 강원도까지 와서 외롭게 지내는데 엄마 같으면서 언니처럼 대해주는 선생님께 마음 한편으로 아이들보다 더 의지하며 기대고 지냈다.

몇 년 전 겨울, 강원도 영동지방 폭설이 내려 집 앞마당에 아이들 허리춤만큼 눈이 쌓이던 날 혹시나 못 오시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에 애들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나를 바라만보고 있던 그때도 선생님은 발 옮겨 놓기도 힘든 언덕길 하얀 눈밭을 헤치며 책임감 있게 와 주셨다. 난 안도의 마음을 쓸어내리며 “선생님 오시느라 힘드시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항상 웃음으로 대답하신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 아이들 엄마인 내가 보기에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힘들다 소리 한번 안 하시고 ‘그저 날씨 탓으로 활동을 못 오면 애들은 물론 호진 엄마의 가게 일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며 내 마음을 몽클하게 만드셨다.

또한, 새벽에 일을 끝내고 귀가해 밤새 갓난아기 챙기느라 항상 잠이 부족한 나를 위해 큰아이 둘의 학교행사며 하물며 유치원 재롱잔치까지 도맡아 대신해 챙겨주셨고, 여름엔 수영장으로 겨울엔 썰매장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경험하게 해주고 틈틈이 사진도 찍어 북(Book)앨범도 만들어 주셨으며, 혹여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 동행





도 거리낌 없이 흔쾌히 해주시는 나에겐 최고! 최고!!의 슈퍼맨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 가던 날 하루하루 생활에 급급해 코앞만 보고 살던 나에게 멀리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회의 말을 건네셨다.

낮에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권유해 주셨다. 나도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만 먹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일이라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아 머뭇거리는 내 마음을 눈치 챈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호진엄마는 지난 풍파도 잘 견뎌냈는데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말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고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등록한 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몇 군데 병원을 고정으로 오가며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자격증을 요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 뿌듯하며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 건 세 아이들이다.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이라고 적힌 좋은 글을 읽으며 가슴에 사랑의 화살이 꽂히듯 와 닿았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엄마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눈동자를 마주치며 저녁시간을 보내다 잠들 때 엄마가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 난 더더욱 행복하다.

항상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했던 나까지도 건강 잘 챙기라고 요즘도 활동 끝나고 가실 때면 늘 염려해 주시는 우



리가정 아이돌보미 선생님.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 Sir, With Love(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사랑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 영화 한 편 보던 때를 추억하게 만드신다.

“삶의 희의를 삶의 매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어둡고 막막했던 우리 가정에 서광이 비추게 동기부여를 해준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그동안 받은 만큼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주변에 베풀며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밤도 활동사진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아이들의 북(Book) 앨범을 보고 또 보며 선생님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된다.







# 이용자 수기<sup>★</sup>



with 人 (사람과 함께하다)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최혜민 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나의 영웅

경북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민주 님

워킹맘에게 기회의 날개를 달아준 아이돌봄서비스

경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소라 님





with 人

## (사람과 함께합니다)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최혜민 님



‘엄마, 무서워요.’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전화 좀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요.’

나의 저녁 7시는 초조한 시간이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두 아이들은 엄마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아빠와 사별한 지 6년째인 2016년, 나와 아이들은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는 누구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으나, 나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큰 아이에게 둘째까지 돌보라고 강요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여섯 살인 둘째는 엄마의 사랑의 손길을 받을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엄마인 나는 아이가 잠에 빠진 늦은 밤, 밤이슬을 맞으며 집에 오고 있었다.



아이의 문자가 오면 나는 어쩔 줄 몰라하며 일도 허둥지둥 처리하고 만다.

두려움에 떨며 엄마없는 빈 집에서 아침에 싸놓은 차디찬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가장이고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지내고 있어 주길 바랬던 것은 나의 욕심이었을까?

아이들은 집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오지 않고 동네 마트를 다니고 있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보이면 그게 나쁜 일인 줄도 모르고 그 물건들을 뜯어서 보고 있다가 마트 점주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다. 차디찬 도시락이 먹기 싫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 들어서 먹고 있기도 했고 집에 있는 과자로 밥을 대신 하기도 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뽑기에 열중하다 지각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늘 외로워했고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의 외로움을 모른척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나는 포기해야함을 느끼고 직장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 초에 아무 생각없이 읍사무소에서 신청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떠올렸다. 낯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불편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복지관에 전화조차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것 마냥 숨이 막혀 있었고 아이들은 돌만 있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복지관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무엇을 도와 드리겠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울컥했다. 나는 정말 절실하게 마음 속 깊이 외치고 있었다.

‘내 아이들을 돌봐 주세요. 아이들을 제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가슴속 깊은 곳에 내 속마음을 감춘 채 아이들 돌봄을 의탁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생님이 오시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렸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출근을 앞두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셨다. 낯선 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은 선생님이 라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것 저것 종알종알 질문세례를 보낸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신다. 아이들은 늘 바쁘고 조급한 엄마와는 다른 자상한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성품에 감격했는지 하루종일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날은 아이들에게 우울한 날이 되었다. 보고 싶어 했고 아쉬워하며 선생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며 한편 서운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안심이 되었다. 마스크의 사건사고들을 접하면서 낯선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득 품고 살던 나에게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경계심을 풀게 하였고 심적으로 안정이 되게 해주셨다.

더 이상 일터에서 아이들의 문자에 초조할 일이 없게 되었다.



나도, 아이들도 점점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며칠 전 저녁 9시까지 돌봄 신청을 했던 날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11시에 집에 오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고 있겠지 예상하고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6살짜리 내 딸아이를 꼬옥 안고 토닥이며 누워 계시는 돌보미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순간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선생님께 거듭 미안하다고 외쳤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선생님은 되려 내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한다며 몸이 많이 피곤할테니 얼른 쉬라고 하시며 집으로 돌아 가셨다.

누군가 아이들을 돌봐 줄 어른이 옆에 있다는 것은 다이아몬드목걸이를 쥐고 있는 것보다 값진 것 같다. 가장 귀한 보석같은 나의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커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인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그 일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때로는 고마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손을 쥐어 잡고 고맙다고 말  
씀도 드리고 싶지만 슷기 없는 성격에 나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만다.  
이렇게 수기로나마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  
다행이다.

‘가슴 따뜻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에 이 땅위에 수많은 아이  
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맘들이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이 제도가 더욱  
잘 정착되고 선생님들의 복지가 증진되어서 많은 아이돌보미 선생  
님들이 그 노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일합니다. 그리고 살아나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덕에 살아  
갑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나의 영웅

경북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민주 님



“편땡님 보고싶어.”

이제 막 말을 한참 배우기 시작한 딸이, 잠을 안자고 보채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응? 지원아 뭐하고 싶어?”

“편땡님 보고싶어.”

“아... 우리 지원이 선생님 보고싶어요?”

“응, 편땡님 보고싶어요.”

어느덧 본인의 느낌을 말로 표현할 만큼 훌쩍 큰 22개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새삼 지난 1년여를 함께 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 아니면 안될 것 같던 돌쟁이 딸이었는데, 정성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 덕에 엄마가 곁에 있어도 선생님이 보고 싶은 정도까지 선생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엄마 말고 선생



님?’ 하면서 섭섭할 법도 한데, 그런 마음은 한치도 없고 오히려 안도감에 괜히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지금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나면서 가능해졌던 것은 지금 돌이켜봐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일하는 엄마다. 어느 엄마든 육아는 쉽지가 않지만,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일하는 엄마 중에서도 흔치 않은 군인 엄마, 그것도 장교 엄마이다. 장교들은 1~2년 정도마다 보직이 바뀌고 이사도 자주 한다. 이런 식으로 근무지가 바뀌다보니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 각종 훈련과 비상 대기, 당직근무와 야근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군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동료들은 친정이나 시댁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두 집 살림은 기본이고, 세 집 살림도 흔히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이 현실이, 막상 내 일이 되니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가왔다. 임신했을 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받으면, ‘방법이 생기겠지요’ 라는 대답으로 짐짓 여유있는 척 했지만, 사실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사정상 어르신들께서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입장이던 나는, 갓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 직후에는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기간에 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도 휴



직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어 아이 몰래  
핑핑 울고는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가  
능해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된 동기가 본인이 혼  
자 아이 키우면서 출퇴근 할 때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  
았다고 꼭 알아보라고 일러주었다. 뜻이 간절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  
다고 했던가,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떨었  
는지 모른다. 영천시이긴 하지만 외곽이고, 아파트도 부대 안이다 보  
니 혹시 오신다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걱정이 컸다. 좋은 분  
이셨으면 하는 기대까지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저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다행히 자차로 부대 안까지 오실 수 있다  
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 그 때의 안도감은 말로 다 못할 것 같다.  
너무나 친절하게 걱정말라고, 잘 봐주실 거라고 나를 안심시키던 담  
당자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로나마 인사를 드렸다.

그 때 딸은 돌이 막 지나 있었다. 어린이집을 어렵게 등록하긴 했  
지만, 아직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를 종일 기관에 둘 수 없어 등원을  
조금 빨리해서 퇴근 때까지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으니 안심했던 마음도 잠시, 곧 걱  
정이 되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 아이 보시는 것이 괜찮으실까? 돌쟁  
이 아이 보기가 좀 까다로운가, 엄마인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말이  
다.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선생님 부탁해야 하는 이 상황에 웬지 모  
를 죄책감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  
다고 하지 않는가.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이 제도가 국가가 마련한 “마



을”이 아닐까, 일단 믿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돌보미 선생님을 뵙는 날을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을 처음 뵈는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였다. 나이로 치면 딸 뻔인 나를 엄마로, 직장인으로 존중해주시는 모습에, 아 이분은 아이도 존중해주실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도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 노래도 부르고, 장난감도 자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놀았다. 아이 돌보미 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동안의 근심이 단번에 씻어지는 기분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신뢰가 쌓여갔다.

지원이는 12월생이어서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과 8개월 이상 차이가 났다. 돌 전후에는 8개월이 꽤 커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뛰어다니는데 우리 딸은 뭘 잡아야 설 수 있는 정도로 차이가 났다. 아이도 그 틈에서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린이집에서는 곧잘 적응을 했지만, 집에 오면 종일 보채고 계속 안아달라고 할 때도 많았다.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짜증을 부리니 퇴근한 나도 어떨 때는 다 받아주기 힘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돌보미 선생님은 포대기로 아기를 업어 집까지 오시고, 아이의 마음을 여러 방법으로 다독여주셨다. 아이들은 다 때가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아라는 장기전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것이 상기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아이가 처음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나보다 더 속상해하셨다.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



도 감기에 걸리셨는지, 한날은 오전에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왔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선생님 편찮으시면 쉬셔도 된다고, 아니 쉬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한테 수줍게 웃으시며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모습에 친정엄마의 ‘난 괜찮다’가 생각나 뭉클했다. 시간 약속 한번 늦는 일이 없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은 아주 가끔 선생님께서 일이 있어 못 오시게 되면 지원이 괜찮겠냐고 오히려 걱정하신다. 긴 휴일 뒤 오랜만에 선생님을 본 지원이가 한달음에 달려 나와 선생님을 꼭 끌어안은 일, 아이가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간 것, 오늘 인형에게 예쁜 말을 한 일을 퇴근한 나에게 말씀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뿌듯함이 있고 표정에는 보람과 행복이 있다.

부대 훈련과 행사, 야간 교육으로 저녁이나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시간대가 부담될 수 있어서 어렵게 돌보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항상 웃으시면서 “걱정 말고 출근하세요.” 하신다. 아, 그 든든한 한마디...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내 직책에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면 어떨을까?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제 우리 딸은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껏 뛰어다니며 노는 건강하고 행복한 2살배기 아이로 자랐다. 나 역시 속수무책으로 걱정만 하던 초보 엄마에서, 일과 육아를 거뜬히 모두 해내는 워킹맘으로 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불가능을 하능하게 해주신 영웅이자,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신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1년간 아이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인사드리고 싶다. 선생님, 감사해  
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 워킹맘에게 기회의 날개를 달아준 아이돌봄서비스



경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소라 님



“유진 어머니, 너무 죄송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부터 우리 유진이 종일제 근무가 어려워졌네요. 센터에 이야기해서 다른 분으로 빨리 배치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할게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는 정확히 회사 복직 2시간 30분 만에 수신된 메시지였습니다.

첫 아이임신, 독한 약을 임신 내내 복용해야 했고, 수혈을 받아야 출산이 가능했던 희귀 병, 천신만고 끝에 건강한 딸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와 주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첫 임신과 유산, 어렵게 재 임신에 성공 했지만 절박 유산의 가망성이 크다는 의사 선생님의 야속한 진단, 오랜 기다림 끝에 첫아이 임신은 남들처럼 평범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산 전까지 혹독한 입덧으로 응급실 행도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5일전까지 열심히 출근하였고, 직장생활을 태교라고 여



기며 고된 임신기간을 버틴 끝에 첫 딸 유진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아기가 그렇지 않겠냐 만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태어난 유진이는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고귀한 첫 아기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기다리던 첫 출산이었지만, 가족과 지인의 도움 없는 그 누구에게도 호락호락 하지 않은 육아의 시련이 저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삶이 바쁘고 고되어 출산 후에도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신랑의 잦은 해외 출장은 자연스레 “독박 육아”의 길로 저를 안내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독박 육아도 저에게는 단 6개월만 허락 되었고, 6개월 이후에는 회사에 복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복직 1달 전부터 유진이를 보면 왜 그렇게 미안하고 안쓰러운지 씩씩하고 의연하던 저도 어쩔 수 없이 우울해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비교해 본 끝에 지인의 소개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직 전 주 2~3회 3~4시간씩 이용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의 도움이 결여된 저에게는 그냥 좋은 공공 돌봄 서비스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돌 전에는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는 것이 어린 아기들의 정서에 좋다는 상식은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은 아는 사실이었지만 저 또한 복직을 앞두고 익숙하고 믿을만한 돌보미 선생님의 보호아래 딸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간 업체는 물론이고, 카페와 블로그, 동네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수소문 하던 중 시간제로 근무해주시던 돌보미 선생님께서 종일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



생님께 유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책 읽어주기, 노래 불러주기는 물론이고 위생 관념이 철저하신 선생님이 맡아주신다니 세상 최고 어려운 수학문제를 해결 한 듯이 회사 복직의 길이 평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 하루 만에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선생님의 사정은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셨고, 센터에 상황을 설명 드려 다른 선생님으로 문제없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교체는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선생님을 과연 아기가 적응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다급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센터 담당자분께 거의 울먹이며 연락을 드려, 좋은 분, 오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최대한 연계를 부탁 드렸고,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전 선생님만한 분이 과연 계실까?’ 라는 의구심과 걱정 때문에 센터로부터 답이 오기 전까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기다리던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고, 센터에서 검증하고 인터뷰 후 적임자라고 추천해 주신, 현재 유진이를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을 연계시켜 주셨습니다. 면접을 위해 간단히 통화한 느낌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신뢰감과 친절함에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였고, 센터로 연락받은 당일, 퇴근 후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없이 면접에 응해주셨습니다. 면접 날 선생님의 첫 인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단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깔끔하고 정갈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너무 수려하신 외모에 “아기를 돌보시는



게 과연 적성에 맞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날 면접하면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언급 하지 못했던 “CCTV”설치는 면접이 끝나고 그날 밤 조심스럽게 통화로 말씀 드렸고, 선생님의 대답은 이러 했습니다.

“유진어머니! 저는 센터에서 교육 받은 대로 그리고 그 동안 아기 돌보면서 겪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양육 하는 모습을 본다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요. 얼마나 궁금하고 걱정되시겠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아기가 궁금할 때에 보시고 혹시 원하는 바는 오해 생기지 않게 꼭 이야기 해주세요. CCTV를 보고 안심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말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써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 해주신 연계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낮가림을 막 시작하던 아기는 거짓말처럼 첫날부터 선생님께 완벽하게 적응 하였고, 그 작고 여린 체구로 아기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일에 한 치의 힘든 내색 없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기가 원하는 바를 눈빛으로 먼저 파악하고 행동으로 바로 대응 해주시는 그런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진이와 돌보미 선생님 인연은 오늘로써 딱 네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보미 선생님은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근무 태만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출근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계약 된 시간보다 늘 먼저 도착 하셔서, 1분 1초가 황금 같은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긴 시간 헤어져 있을 아기와 엄마에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유진아, 엄마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안아줄게”라고 인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도 유진이의 컨디션을 물으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퇴근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기가 편안한 표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후 상황을 꼼꼼히 알려주시고, 선생님 퇴근 이후에도 각별히 주의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십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센터 일지 작성도 번거로우실텐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히 적어주시는 종이일지에는 무한한 사랑과 철저함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종이 일지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적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몇 시에 우유와 이유식을 먹었는지 단순 체크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을 일기 쓰듯 적어줍니다. 오늘 무슨 놀이를 했고, 그 놀이에 유진이 반응과 흥미는 어떠했으며, 대변 상태는 어땠고, 어떠한 재주로 오늘 하루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었는지 어떤 자극은 싫어하니 참고하라는 내용을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적어주시고, 퇴근 후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는 저에게 물을 틈도 없이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그 모습은 마치 퇴근해 오는 신랑에게 오늘 하루 아기의 일과를 설명해 주는 아기 엄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유식 완료기에 접어든 유진에게는 무슨 간식과 영양소가 필요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아기가 거부감이 없는지, 신선한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알려 주십니다. 이런 총괄적인이고 맞춤식 육아 매니지먼트는 전문 육아서적이나 육아 카페에서도 얻기 힘든 정보입니다. 또한, 막 일어서기와 걷기를 시도하는 아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저지 하지 않으시고, 다칠 수 있는 순간에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내밀어 안전하게 발 돌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하며 박수쳐 칭찬 해줍니다. 어쩔 땐 샘이 날 정도로 선생님한테 안겨서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엄마 아빠 보다 먼저 선보이는 첫 재롱을 동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과연 “일”이고 “업무”라고 여기신다면 가능한 일인지 하루하루 감동하며 선생님을 무한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재주가 없는 제가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경험담을 종이에 글로만 나열하는 것은 선생님이 주신 배려와 사랑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앞으로도 유진이와 저희 가족에게 좋은 기억과 평생 은인으로 남게 될 돌보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늘 불안과 걱정 속에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야 하는 워킹 맘에게 기회의 날개를 달아 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 이용자 후기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부산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주희 님

저희 집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선주 님

우리 아이 할머니는 셋!!!

서울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 민 님

나의 반쪽이 되어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구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유명주 님

사랑하는 나의 멘토

인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미진 님

아픈 엄마에게 온 선물

서울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정연 님





## 내 생애

## 최고의 선택

부산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주희 님



저는 부산진구에서 24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직장 맘입니다. 평상시 아들은 친정어머니가 함께 계시며 돌봐주시고 계세요. ‘엄마’라는 희생의 이름표가 붙은 큰 나무가 드리워주는 그늘 아래에서 아직도 어리광을 피우는 철없는 엄마입니다.

지난 6월이었어요. 잔인했던 그날의 새벽,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수현이를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심한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시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향하던 어두컴컴한 새벽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며 눈물이 나던지. 친정어머니께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제가 행여나 신경 쓰일까, 또 돌봐줄 사람 없는 손자 수현이 걱정돼 쓰러지시는 전날까지도 아픈 걸 내색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입원 후 병원에서는 심한 장염과 뇌수막염 진단을 받으셨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셨어요. 입원한 와



중에서도 수현이 걱정에 빨리 퇴원하시겠다는 걸 말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막상 친정어머니가 입원을 하고나자 직장 맘인 저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맞벌이라 엄마 아빠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수현이를 봐줄 사람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선생님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천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만 들어봐도 ‘아 이거면 되겠다!!’ 하는 엄마의 감이 오더라구요. 정말 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님께서 어찌나 친절하게 대응해주시던지. 제가 늦게 이 제도를 알아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필요한 하루전날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과 형편을 들으시곤 빠른 가입절차를 승인해주셨고, 직접 돌보미 선생님을 찾아서 매칭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굴 모르는 수현이를 위해 애를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돌보미 선생님이 정해지고 나니 아기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큰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걱정들이 새록새록 피어오르더군요. 엄마, 아빠와 외할머니와만 지낸 우리 24개월 아기는 어린이집에 다녀본 경험조차 없었거든요. 낯선 분과 태어나서 처음 둘만 지내게 될 텐데, 하루 종일 울면 어찌나 하는 걱정, 아토피가 약간 있는 우리 아기에게 로션은 자주자주 발라주실지, 수현이는 자고 일어나면 조금 놀다가 밥을 잘 먹는데 그렇게 먹여주실지 등등.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께 아이와 관련된 장문의 긴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시던 첫 날. 선생님께서는 다 년간의 어린 이집 경험도 있으시고 아기를 돌본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한결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하는 맘으로 돌보미 선생님과 수현이가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아기에게 밝게 인사하시고 거실에 앉으시니 수현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다리에 폭 올라앉아 안겼다고 합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던 아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선생님을 만나니 친근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저보다 출근이 늦은 남편에게 전해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결 안심이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한 편은 항상 집에 있을 아이와 돌보미 선생님께 향해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아이의 근황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셨어요.

「수현이 어머니! 수현이 잘 놀다가 과일 먹고 기저귀 갈고 우유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낮잠도 아직 자지 않고 잘 놀고 있습니다. 밥을 먹여야하는지요?」

「수현이 어머니! 수현이 놀다가 밥 먹고 이제 잠들었어요. 밥 먹기 전에 우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손으로 밀어내서 밥을 주니 잘 먹었습니다.」

「수현이 낮잠 든 후 5시 반에 깨어나 우유 200ml 먹고 미지근한 물로 씻었습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놀고 있고, 언제 간식을 먹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아이에 관한 작은 소식이라도 자주 알려



주시니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낮잠 자면서 땀을 흠뻑 흘렸다고, 부탁드립니다 못한 목욕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졌답니다. 이틀 날에는 다른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서 며칠 동안 돌봐주셨어요. 두 번째 낯선 선생님을 만났지만 역시 좋은 선생님 덕분에 수현이가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계속 문자로 아이의 안부를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잠은 아직 안 잤고, 까꿍 놀이도 하고 똥굴어 가면서 너무 잘 노네요!」

「뽀뽀 해주니까 참 좋아하네요.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밥은 적당히 먹었고 바나나 한 개 먹었고 포도 껍질 까서 열 알정도 먹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도 틈틈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꼬마 천사가 엄마 아빠가 없이도 집에서 외할머니랑 놀던 것처럼 까꿍 놀이하고 똥굴 놀이하고 뽀뽀세레도 해가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을 거예요. 돌보미 선생님께서 댁에 돌아가신 후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받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간식을 약간 덜먹고 밥도 조금 덜먹고 했던 것 같다고. 혹시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먹는 게 줄 수 있으니 밤에 엄마가 수시로 열도 체크해보고 목도 꼭 체크해보라는 당부 말씀이셨답니다. 수현이를 걱정하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진심이 와 닿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가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환경인 ‘집’으로 육아전문가인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엄마, 아빠 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힘든 시기 직장 맘에게 있어서 정말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을 하셔서 다시 집에서 수현이를 돌봐주시고 계세요. 전엔 어머니도 본인이 아프시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프신 사정을 말씀도 못하시고 참고 하셨지만, 이제는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 여유가 생겼답니다. 첫날 제 장문의 편지에 답장처럼 보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마지막 작별인사 문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현이 어머니! 수현이는 잠투정도 하지 않고 자기의사 표현도 잘 하고 호기심도 많고 잘 커가고 있어서 귀여웠고, 이 기간 동안 수현이와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현이가 가족의 사랑을 듬북 받고 커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정서적인 면, 수면습관, 식습관 등의 좋은 점이 수현이 외할머니와 엄마 아빠의 좋은 보육영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배려로 편하게 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깊이 새겨서 더 열심히 우리 수현이를 돌보고 건강히 키울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 저희 집에는

# 아이☆돌보미☆선생님이☆계십니다. ☆

대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선주 님



“아이고, 애국자네. 애국자.”

누군가 내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애국자야. 애국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장한 일을 했어!”

늦은 나이에 아이 셋을 낳은 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아주머니의 말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한 못한 어머니가 듣기에는 과분한 말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세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퇴원한 한 달 후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다. 1.98kg로 태어난 큰 아이, 1.87kg로 태어난 예쁜 딸, 그리고 너무나 무 미안한 몸무게인 1.14kg로 태어난 막내까지 집에 오니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우리집에 우리 아이들을 보러 와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베이비 업체, 산후도우미업체 등에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미안합니다.”

자신들이 돌봐야 할 사람이 삼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미안해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아이들을 봐 주시기로 하셨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셨지만 한 달 이상은 오시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연히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지원조차 해 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백일이 될 때까지 버텨야 했다. 믿을 사람은 남편과 친정어머니, 동생 뿐이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초긴장의 나날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한숨소리만이 집안에 가득했다.

하루가 수십 년 같고, 일주일이 수천 년 같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랐다. 대신 원망만이 쌓였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이렇게도 없나. 애국자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인가. 당장이라도 버선발로 쫓아나가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도와주세요. 아이 한번만 제발 안아주세요. 팔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너무 무서워요.”

작기만 한 아이 셋을 돌보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세 생





명을 품는 일도 키우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을 해 내  
기에는 나 자신이 한없이 모자랐다.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본 적 없  
는 초보 엄마가 슈퍼우먼이 되기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나.’

원망으로 보내던 시간은 그래도 흘러가 주었다. 드디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대기  
가 길었다. 신청자가 많아 언제 서비스를 받게 될지 기약할 수 없다  
고 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시간제를 신청해 보  
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하루 4시간 오실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다고 했다.

지정된 시간에 오실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했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  
다. 하늘에서 내려온 꿈은 동아줄 같았다. 그로부터 많은 돌보미 선생  
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짧긴 길긴 감사하기만 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에 임신 전에 하던 일도 할 수 있게 되  
었다. 삼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  
기만 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집으로 오시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고민하는 내게 선생님들은 늘 똑같은 조언을 해 주셨다.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은 우리에게 맡기고 일도 하고 바람도 쐬고



와요.”

그렇게 가정과 일을 양립하며 살게 되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4개월 되던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나를 보며 회사 사람들은 한결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아이 셋을 두고 일을 하다니 그게 가능해요?”

그들의 질문에 나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한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집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난 10월 16일은 아이들이 19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천년 같았던 하루하루가 어느 날은 꼭 하루만큼 가기도 하고, 하루보다 짧게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재롱을 함께 보며 웃어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 우리 아이 할머니는 셋!!!

서울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 민 님



아빠와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선생님 할머니!

이제 막 생후 29개월이 지난 이름이 민주인 저희 딸은 집에서는 그야말로 예민한 청개구리입니다. 그런 아이가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하늘이 펼쳐지는 요즘, 엄마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만 하면 고사리 손으로 낙엽과 도토리를 콕콕 집어 들고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애길 합니다.

“선생님 할머니 갖다 줄 거야”

종알종알 말을 배워가는 어린 딸은 책을 보면서도,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돌보미 선생님이신 ‘선생님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엄마! 선생님 할머니랑 올림픽공원 가고 싶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할 계획



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선생님 할머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저희 딸이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이유와 함께 제가 마음 속에 담아 두고는 평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용기 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나름 커리어 우먼(career woman)이라고 생각하며 결혼과 가족을 꾸리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일과 자신을 위해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결혼도 늦어졌고 첫 아이도 37살을 넘겨서야 낳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쁜 딸을 데리고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과 휴가를 최대한 써 가며 육아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은 가정 형편인데다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며 학업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 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휴가를 계속 쓰는 것도 직장에 눈치가 보였고 일을 그만 두면서까지 경력을 단절 시키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을 검사하는 직장에서의 제 일이 저에게는 큰 의미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양쪽 어머니들은 시골의 농사일로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사실 육아 돌봄서비스는 저희 형편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라에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 기대로 찾아 들어간 곳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의 담당 기관인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자세히 문의한 결과 저희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정말 가뭄에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2015년 3월부터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척 만족했기에 때문에 마음 놓고 조금 더 긴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선생님도 종일제 선생님이로 바뀌어야 했고 기존 선생님도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와 계속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어린 아이인데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금방 적응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민주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실지, 이런저런 기대와 우려가 저희 부부에게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종일제 선생님이로 만난 분은 아이돌보미에 선발되어 이제 막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작하시는, 시골에 계신 저의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돌보미 선생님과 첫 인사를 나눴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온화한 인상과 따뜻함이 저는 물론 아이에게도 전해졌는지 낯선 사람만 보면 울음보를 터트리는 예민한 아이가 금세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아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똑똑한 아이로 잘 키우기 위해 한번쯤 읽어야 한다는 외국 육아서적도 보고 사람들이 몰리는 인터넷



육아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온통 서양식 육아방법이 좋다는 정보를 접할 때마다 ‘왜 현실 속 육아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혼란을 느꼈죠. 그러던 때 제가 눈을 돌려 조금씩 전통육아에 관심을 갖고 환희를 느꼈던 것은 돌보미 선생님 덕분입니다. 바로 돌보미 선생님이 그야말로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우리의 전통 육아법으로 민주를 키워주시는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치 자신의 손녀에게 대하듯 웃는 눈으로 마주하며 ‘도리도리’, ‘곤지곤지’, ‘지암지암(잼잼)’, ‘ 짹자쿵(작작쿵)’ 등의 놀이를 통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와 소통하며 어느새 둘이 완전 찰떡궁합이 되어 있었죠.

또 선생님은 신세대 할머니 면모가 가득하셔서 민주랑 노래도 부르며 춤까지 같이 추며 놀아주시니 아이가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무척 기다리고 좋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아이만을 위해 좇는 그 어떤 정보보다는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놀아주는 그 자체가 어린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선생님” 대신 서툰 말이지만 “할미~ 할미~”하면서도 돌보미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그런 선생님과 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돌보미 선생님을 자연스럽게 ‘선생님 할머니’라 부르며 한 가족처럼 민주의 세 번째 할머니로 받아들였죠. 시골에 계신 양가(兩家)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 할머니. 이렇게 민주에겐 친할머니와 같은 분이 한 분 더 더해져 셋이 되었답니다.

어느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



도 민감하고 예민해서 늘 조심스러웠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민주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영민하다며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키우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이 친정 엄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더군요. 예쁜둥이, 사랑둥이, 똑순이 등등 선생님 할머니가 민주를 칭하는 애칭도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와 소통이 잘되고 즐거우니 말도 빨라지고 배변훈련한지 얼마 안 돼 귀저귀도 떼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주가 20개월쯤 되었을 때인가 한번은 선생님께서 민주가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며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때 평소 아이와 소통하며 꿈을 키워주시는 모습에 놀랐고 또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주가 판사도 되고 싶다고 애길 했으며……. 하지만 사실 이걸 선생님이 소망하는 아이의 미래였지요. 선생님 할머니와 떨어져 어린이집을 다니는 지금도 민주의 이 꿈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민주의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를 만나서 저는 민주의 동생을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육아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 할머니 마음에 저희 부부는 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시 직장へ 돌아가고 남편도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주가 24개월을 넘겨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밝고 건강한 아무진 아이로 자라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의 '선생님 할머니'가 되셨지만 저희는 종종 한가한 주말에 선생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듯, 민주는 할머니를 만나듯 말이죠. 한번은 식당아주머니가 선생님 할머니와 민주가 노는 것을 보며, “할머니가 손녀를 너무 예뻐하시네요”라고 하셔서 저희는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보면 가족처럼 보이는 우리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저에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돌보미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겐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사촌과 더 잘 지내는 요즘, 좋은 인연을 만나 큰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운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려운 육아를 한 가정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만na 힘을 합쳐 소통과 공감의 돌봄으로 나눈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무관심이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 돌봐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온정 넘치는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깨닫고 사회적 책임으로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선생님 할머니와 함께 더 큰 가족을 만들어 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경력 단절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찾기를 포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천재성을 위해 남들의 말과 정보들을 좇고 자신의 의지로만 아이를 버겁게 키우며 자신감을 잃어가는 육아맘들을 위해, 그 고충을 풀어주



는 든든한 육아의 자부심으로 꾸준히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자신의 손주처럼 눈을 맞춰 소통하며 감성과 지성은 물론 공감하는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 주시는, 또 다른 ‘선생님 할머니’분들께 힘찬 응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나의 반쪽이☆ 되어준 아이☆ 돌봄 서비스!

대구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유명주 님



“엄마, 이모가 내일도 우리집에 온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제 24개월된 꼬맹이 아들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내일 또 이모가 온대?”

말을 시작한 것도 신기하지만, 아침에 오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모습이 기특하고 다행이다 싶었다.

태명이 햇살이었던 우리 아들은 결혼 7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겨우 얻은 귀한 아이였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도 우리 부부는 잘 살지 못하고 어린 아기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고, 아기가 두 돌이 채 되기도 전에 나는 싱글 맘이 되고 말았다.

두려움이 눈앞에 가득 펼쳐졌지만 아기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일할 수 있는 직



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를 맡겼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라 적어도 9시는 되어야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한동안은 원장님이 8시에 아이를 맡아주셔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했던 나는 직장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통이 따로 없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담요에 말아 안고 어린이집으로 뛰어간 적도 있고, 한번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아이를 자동차 카시트에 태우고는 문을 닫았는데, ‘세상에나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휴대전화가 들어있을 손가방도 이미 자동차 앞자리에 실려 있는 것을 본 나는 정신이 없었다. 이른 시간인데다 비가 와서 주차장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아파트 관리실에도 사람이 없어서, 차에 갇혀 혼자 있는 아이를 향해 엄마 잠깐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아파트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찾아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슈퍼마켓으로 달려갈 때는 차에 남겨진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심장이 온통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슈퍼마켓 아저씨의 전화기를 빌려 긴급 출동을 부르는데, 서비스 단계는 또 왜 그리 복잡하고 길기만 한지, 심장은 뼉박질 치는데 수화기 넘어서는 “맞으시면 1번, 아니시면 2번.....”

머리 속이 하얗게 된 나는 내 자동차 번호판마저 언뜻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어느새 한 이십분은 훌쩍 지나갔을 무렵, 나는 다시 차로 달려올 수 있었다.

차에 갇혀 어리둥절해 있는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울



지는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표정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아이를 향해 애써 웃어보였다. 긴급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진정시켜야 했기에 나는 차 유리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곰 세 마리’ 노래를...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쪽을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웬 아줌마가 자동차 차문 앞에 붙어 서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수상할 법도 했을 거다. 상황을 알게 된 아저씨도, 우산 쓰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몇몇 그렇게 함께 긴급 출동 아저씨를 기다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한 삼십 여분 만에 드디어 문이 열리자 놀란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비를 맞아 폭삭 젖은 내 얼굴에도 안도의 눈물 두 줄기가 뜨끈하게 느껴졌다.

‘아, 한 손만 나를 도와 줄 손길이 있다면...’

혼자서도 잘 해나가리라 다짐했건만, 아이를 안은 내 팔은 점점 무겁게만 느껴진 건 왜일까.

한동안은 멀리 다른 지방에 있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려 가끔 오셨다.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한 번씩 우리집까지 오셔야했던 엄마는 급성당뇨로 쓰러지셨고, 더 이상은 친정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무렵 우연히 오랜만에 안부를 묻게 된 친구가 아이 돌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자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이다.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일도, 만만치 않은 비용도 부담이 되어 망설였던 나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문의 단비같이 반



가운 소식이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절박한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하였다.

당장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월요일 아침, 돌보미 선생님이 우리집에 오셨다. 처음에는 내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던 아이가 선생님의 환한 얼굴과 다정한 말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함께 블록도 만들어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아이와 놀아주시는 동안 나는 출근 준비도 하고 간만에 이쁜 옷도 차려입어 보았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출근 하는 나를 배웅해 주는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볼 때 내 마음 속 두려움은 눈녹듯 녹아내렸다. 그렇게 나의 아침 시간에 평화가 찾아왔다.

아침 9시 반이 되면 항상 돌보미 선생님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오늘은 현민이가 길가에 민들레를 꺾어 들고는 ‘좋다’라고 말했어요. 한 송이 꺾어서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들고 가서 드렸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가는 길, 오랜만에 개미를 만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동안은 개미가 안 보여서 현민이가 많이 찾았었거든요.”

세 발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우리 현민이와 돌보미 선생님의 산책길은 매일 매일이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날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선생님이 자전거로 아파트 주변을 몇 바퀴나 돌다가 들여보내 주신다고도 하셨다.

엄마인 나도 아이를 울리지 않고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아이와 함



께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미 아이를 길러보셨고, 여러 세월의 곁을 겪어 보셨기에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여유, 그런 것들을 이제 초보 엄마인 내가 조금씩 배워가게 된다.

싱글 맘으로 힘겹게 이어가던 나의 생활에, 바쁘기만 해서 부족하기 만한 내 사랑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그 인연으로 오신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한 틈을 완벽하게 메워주시는 반쪽임에 틀림 없다.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긴다는 건’이라며 누군가 망설이고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육아의 힘겨운 일상에 큰 위로가 되리주리라고 자신있게 말해주고 싶다.





## 사랑하는 나의 멘토



인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미진 님



2년 전 친구가 출산 후 혼자 육아 할 때, 친구는 집에서 혼자 아기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이 행복한 투정으로 들렸다.

‘아기 잘 때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러면 되지’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 내가 아기를 낳고 휴직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니 그 말은 비수 쏘는 말이었고 그 말을 당장이라도 주워 담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했다.

그렇게 바라던 아기 그것도 나에게서 딸 쌍둥이가 생겼다. 딸 쌍둥이를 출산하고 2주의 조리원 생활, 두 달간의 산후 도우미 분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육아가 이리 힘든 줄 몰랐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애 낳고 안 아픈 곳이 없었다. 엄마들이 손 마디 마디가 저리다는 말이 몸소 실감이 됐다.





정말 앓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내 맘대로 되지 않았고, 화장실 한 번 편히 못 갔다. 밤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아기가 깨며 젖 달라고 울어대는데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아기 수유하면 또 다른 아기가 울어대며 젖 달라고 하니 정말 나는 하루 하루를 버티는 수준이었다. 잠 한 숨 제대로 못 자 정말 정신과 몸은 피폐해져갔다. 그래서 다들 친정엄마의 찬스를 쓴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의 친정엄마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도 엄마는 손녀들과 나를 자주 아니 딱 한 번 보러 오셨다. 그 생각만하면 솔직히 눈물이 난다.

2개월의 산후 도우미 분의 도움은 끝났다. 나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때가 왔다. 소위 말하는 ‘독박육아’...

남편이 출근한 뒤면 솔직히 공포스러웠다. 아기들이 동시에 울까 봐. 그래서 허둥지둥 급하게 분유를 타다가 엽지르는 등의 실수 투성이었다.

혼자 육아를 해 보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정말 쌍둥이는 시간차를 두고 수유를 해도 동시에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정말 멘붕이었다. 첫째 아기를 바운서에 태우고 UFO쿠션이라고 젖병을 지탱해주는 쿠션에다 젖병을 매달고 분유를 먹이고 둘째는 안아 젖병을 물리면서 첫째가 탄 바운서를 발로 흔들어 대는 것은 묘기에 가까웠다. 그러다 첫째가 잘 못 먹어 사리에 걸려 울고 둘째 먹이는 것을 중단하게 되니 둘째가 악을 쓰며 울어대고 첫째도 울고 엄마도 울고... 식사 시간? 나에게서는 식사 시간은 따로 없다. 그냥 잠시 틈이 날 때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허겁지겁 입에 쑤서 넣는 수준이었다.





거기다 딸내미들은 안아서 낮잠을 자야 했고 항상 울면서 동시에  
졸려한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우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한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울려야 하는 상황은 매번 왔고 눈물만  
주르륵 흘렸다. 편하게 내 큰 볼일 보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냥 무조건 참아야 했다. 그래서 내 몸은 변비에 관절 저림, 속  
쓰림의 악순환에 날로 짜증만 늘었고 그 짜증이 결국 남편한테 퍼붓  
게 돼 남편과의 말다툼도 잦아졌다.

나는 남편과 상의해 없는 형편이지만 베이비시터를 구하자고 했  
다. 우리 형편에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베이비시터  
를 구하는 기간 동안 울면서 친정엄마께 부탁까지 했다. “엄마! 엄마  
몸 아픈 거 아는데 여기 와서 애기들 동시에 올 때 분유만 주면 안 될  
까?”

엄마는 아픈 몸인데도 흔쾌히 알았다며 와 주셨다. 조금만 움직여  
도 숨을 헐떡이는 엄마한테 부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아픈 엄마의 식사를 챙기고 엄마가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  
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 시켰다. 빨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베이비시터 한 달 이용료는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거 보다 너무 비쌌다. 그냥 한숨이 절로 나왔  
다. 휴직한 상태에서 남편 홀로 외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딸  
들을 동시에 키워야해 두 배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  
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이용 절차, 조건



등을 검색하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센터 연락처를 알려줘서 전화를 걸었다. 보통 대기 순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하였는데 나는 운이 좋았는지 빠른 시일 내 돌보미 선생님이 바로 연계되었다고 했다.

센터 담당자와 앞으로 우리 가정 내에 오실 돌보미 선생님이 면접 보러 집으로 방문했다. 쌍둥이 중 첫째아기를 돌보미 선생님이 맡고 둘째는 내가 맡아서 집에서 같이 돌보기로 했다.

돌보미 선생님이 첫째아기만 봐주는 조건이기에 같은 공간에 두 아이를 보면서 혹시나 둘째아기까지 봐주실 상황을 만들어 돌보미 선생님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

돌보미 선생님과 며칠 같이 아기들을 본 어느 날, 나는 내가 봐야 할 둘째를 낮잠 재우고 화장실이 급해 조용히 화장실을 갔는데 둘째가 갑자기 울어대는 바람에 볼 일도 제대로 보지 못 한 채 허겁지겁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돌보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엄마! 아기 울면 내가 봐 줄 수도 있는거죠. 내가 봐야 할 애만 어찌 봐요. 그러지 말고 편하게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래요. 그게 나도 편해요. 내가 볼 애 아닐 애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다.

아기들 병원 갈 일 외 외출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급기야 우울증까지 왔지만 나는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게 되었다. 매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육아 선배로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담을 통해서 육아도 하나 하나 배울 수 있었다. 쌍둥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니 어른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무척이나 그리웠는데 그 부분을 돌보미 선생님이 충족시켜줬다.

남편은 4일에 한 번씩 야간 당직 일을 해야 했고 밤에 혼자 아기들을 돌볼 수가 없어 돌보미 선생님이 온 이후로 친정엄마는 남편 야간 당직하는 날마다 오신다. 그리고 며칠 있다 가시곤 한다.

엄마가 집에 계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엄마의 식사이다. 음식 하는 것에 전혀 소질 없는 나로서는 정말 곤욕이었다. 입맛 까다로운 엄마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기는 나한테 임금님 진수성찬 차리는 심정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돌보미 선생님은 두 팔 걷어 올리고 “이리 와봐요.” 하며 주방으로 나를 부른다. “두부 조리할 때는 이렇게 간을 맞추면 되고, 된장찌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구수하고 시원해요”라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맛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아기를 돌보면서도 선생님의 살림 노하우, 음식 노하우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나는 선생님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 음식을 맛 본 선생님은 칭찬의 연속이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음식 만드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퇴근하고 별 거 없는 반찬에 대충 한 끼 때우는 남편의 식사에 따뜻한 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을 내놓을 때 남편 또한 입가에 웃음을 머그며 칭찬했다.

때론 선생님은 내가 육아로 지칠 때마다 그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엄마 커피한 잔 할까나?” 하면서 힘든 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힘을 얻어 툭툭 털어버리며 또 육아에 전념할 수 있



는 원동력이 되었다.

친정엄마가 와 계신 어느 하루는, 선생님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남편하고 오늘 큰 맘 먹고 영화나 한 편 봐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지. 애기들 걱정은 하지 말고요”라며 제안을 했지만 아프신 친정엄마와 돌보미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아기들을 맡기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해봤고 그렇게 하기엔 돌보미 선생님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나는 그날 남편과 출산 후 처음으로 영화관을 갔고 정말 나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몸은 피곤하지만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그 기분은 고스란히 아기들에게 전달 되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즐거우니 아기들의 까르륵 내는 웃음 소리는 더 커져 시끄럽다고 아파트 민원 들어 올까봐 행복한 걱정도 하곤 한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간다. 선생님은 나에게 그냥 돌보미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멘토이고 그리고 나의 친구 그 이상이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이용자의 관계는 돈을 지급하고 이용자의 아기를 돌봐 주는 관계라고 하지만 나는 선생님과 관계에서 끈끈한 인간적인 정을 느꼈고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출산 후 육아에 ‘육’ 자도 모르고 우울해 하는 나에게 웃음을 찾게 해주었고 싸움 잤았던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졌다. 며칠 전 엄마는 나에게 “내년 내 칠순 제주도 가족 여행 때 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말씀

드려봐” 라고 하셨다. 그 만큼 선생님은 돌보미 선생님이기 전에 우리 가족이다.

돌보미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아픈 엄마에게 온 선물

서울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정연 님



저는 암환자입니다. 암 덩어리가 뇌와 뼈에 퍼져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 중도장애인이죠. 이런 제게 삶을 살아가는 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얼마 남았을지 모를 제 삶을 장애인이 된 채로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고 싶지 않은 저에게 그래도 살아가야 할 마지막 희망과 의지가 있는 건 제 아이들과 제 남편 때문입니다. 다들 엄마니까 어떤 마음일지 아실 꺼라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삶보다 내 아이들을 위한 남은 삶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14개월 때 제가 암이란 걸 알고 수술과 병마투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야 했던 큰아이, 그리고 둘째아이는 지금 막 13개월 된 돌 지난 아기죠. 두 아이 모두 너무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제 삶의 전부이고, 제가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힘입니



다. 이런 긴 서두를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게 아이들이 특별한 만큼 저처럼 까다로운 엄마도 없을꺼란 생각에.... 이런 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얼마 남은지 모를 제 인생의 끝까지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잔뜩 해주고 싶은 마음...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잔뜩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게 제 마지막 바램입니다.

중도장애인이 된 저는 사실 뜻하지 않게 둘째를 낳았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하지 못하다 보니 아가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안아줄 수가 없고 당연히 분유를 주는 일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목욕을 시켜주는 일도 갑자기 장애인이 된 저로선 아직 요령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제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한없이 작게 만드는 일 같아요. 그리고 큰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들이 몸이 불편하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아가와 아픈 제가 남편과 이제는 다섯 살이 된 저희 큰 아이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 죽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힘들걸...

왜 그런 몸으로 아기를 낳았냐고 하시겠지만 세상사 사람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런 고난의 과정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참 힘들었던 순간이라 잔뜩 날이 서 있었던 거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제게 맞는 여건에선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런 저는 낯선 마음에선 혹시나 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남의 아이를 얼마나 잘 봐줄까?”하며 의심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이가 엄마인 나와 같은 공간에서 돌보미 선생님과 같이 있는 거니 그나마 안심하며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의 저에겐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이 되어 가슴 한편의 짐이 될 만큼 선생님께 죄송해요. 그 정도로 돌보미 선생님은 좋으시고 다정하세요.

다른 것도 다 잘해주셨지만 가장 힘들었던 아기의 목욕을 너무나 예쁘고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걸 보고, 처음엔 적은 시간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깊은 신뢰감으로 거의 종일 저희 둘째를 맡길 만큼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종일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지 늘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가는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종일 매달려요. 어쩔 땐 서운하지만 느끼는 바는 확실히 있어요. 아기는 거짓말을 못하죠.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진심을 아니까 엄마보다 더 선생님께 아낌없이 손을 뻗어요.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 안아주고, 그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어 저희 아이의 모든 처음에 선생님이 있어요. 웅알이도, 걸음마 떼기도, 손뽕 치기도 다른 엄마들에겐 별거 아닌 거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못해주지만 저희 돌보미 선생님은 다 해주시죠.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몇 달을 선생님을 쫓 지켜봐온 저로서,제가 곁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없어도 한결 같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엔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만 가도 걱정되던 저는... 제 아이를 보며 선생님을 믿게 되다 보니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셔도 걱정 없이 쉴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곁에 없는데 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저희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모든 제 날 서던 마음의 평화는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를 대해주시는 선생님 의 넉넉한 인품에 있습니다.

저희 돌보미 선생님은 정말 저희에겐 가족 같아요. 큰아이의 어린 이집 등하교도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계세요. 그러다보니 긴 시간 저희 가족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이모”라며 부르고 식구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모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만큼 큰 위안은 없을 거예요. 사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요?

몸이 아프지만 아이를 아무 곳에 맡길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며 아이를 돌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삶의 끝을 생각하며 견디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수기를 쓰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믿을만한 분들이 있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소개하고픈 분들이 ‘아이돌보미 선생님 들’입니다.





# 아이돌보미수기<sup>★</sup>



서준이와 함께한 여정들...

대전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 | 김미선 님





## 서준이<sup>☆</sup>와 함께한 여정들...

대전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 | 김미선 님



2013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입학식은 다가오는데 돌보미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토요일 7시가 넘어서도 센터에서는 퇴근을 못하고 여러 곳에 전화를 하다하다 내게 걸려온 부탁 전화였다. 정림동 06시-08시까지 활동 부탁드린다는, 거절할 수 없는 활동이었다. 입학은 널 모레인데 싶어서 가겠노라고 하고 서준이(가명)와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활동 전 날, 집도 알 겐 아빠랑 통화 후에 잠깐 집에 들렀는데 말씀하시기를, 할머니는 건축 공사장 일을 따라 다니시는데 새벽 5시 반이면 집을 나서야 하고, 아빠도 큰 빌딩 청소일이라 팀을 짜서 새벽같이 나가고 지방으로 가면, 며칠 썩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잘 부탁드린다고, 너무 시간이 일러서 죄송하다고 하신다.

새벽에 오셔서 서준이가 자면 옆에서 자라고도 배려를 해주시는



아빠.

할머니는 여태껏 서준이를 어린이집 끝나면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여서 다시 집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재웠다고 한다. 새벽에 돌봄 사람이 없어서이다. 그러기를 3-4년..

어린이가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할머니...

잘 돌봐줘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3월 2일부터 새벽활동은 시작되었고, 2014년, 2015년 11월.. 서준이의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하고, 라형으로 이용요금을 내야할 시점이 오자, 경제적인 부담으로 서준이가 3학년이라 혼자 일어나 다니게 하겠다고 하셔서 활동을 마친 가정이다.

새벽에 도착하면, 잘 때와 깨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가 반반일 정도이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시끄럽게 해서 잠을 깨웠다고...

반찬은 늘 계란프라이 한 개만이 밥상에 달랑 올려져있다. 고추장이나 간장에 비벼서 먹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한참 잘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있는 가정은 안 먹어서 야단들인데..

그래도 그 아침에 서준이는 고추장에 비빈 밥을 한 그릇 다 비우는 데 늘 마음이 짠했다.

집에서 밑반찬을 하면 서준이 컵은 따로 싸서 갖다 주기도 하고, 국이랑 간식도 챙겨 갖다 주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다 먹고 나서 잠시 쉬게 했다가 한글 읽기와 쓰기 공부를 시켰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그나마 한글은 읽는데, 받아쓰



기가 영 안 되는 형편이어서 싸워가면서 가르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수학이랑 구구단.. 방학이면 방학숙제.. 등등..

만들기를 너무나 잘하는 서준이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다. 만들어서 “선생님 가지세요.”하면서 아침에 가면 주기도 하고, 서준이 돌봄을 마치고 갓난이 아기를 돌보러 가는데, 아기에게 줄 것도 챙겨주기도 하는 참으로 따뜻하고 소박한 서준이라 많이 예뻐했다.

쉬는 날이면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다고 해서 놀다가지기도 하고, 토요일 활동일은 자전거를 각각 타고 갑천을 신나게 달려보기도 하고,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서 같이 해보기도 했다. 서준이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고, 책을 읽어주고 뜻을 물어보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엄마와 전화했다고(아빠 몰래) 자랑하면서 엄마가 보내준 학용품이며 옷, 신발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들의 삶속에서 철없는 아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어느 토요일은 엄마가 아빠 나가신 후에 찾아오셨다.(할머니와는 사전에 의논이 된 상황이라고 서준이가 말해준다.)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시는 엄마..

말씀 많이 들었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시는 뒷모습이 아이 때문에 눈물과 그리움에 사무쳐있었음이 느껴졌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아빠의 허락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엄마가 오셔서 서준이랑 하루를 보내고 서울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더 기다려지고 좋았다.

엄마를 만나는 후부터 서준이는 더 밝아지고 명랑해지기 시작하면



서 키도, 몸도, 생각도, 마음도 쑥쑥 자라주고 그렇게 어려워하던 쌍  
받침 받아쓰기도 구구단도 줄줄 외우는 서준이가 되었다.

엄마와도 나와도 카톡을 하면서 문장을 써보게 하고, 틀린 글자는  
다시 알려주면서 글을 쓰는 법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바퀴벌레가 부엌이랑 방, 화장실에 다녀서 너무 싫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서준이와 그 가족들의 안쓰러움에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 겨울..

새벽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로 45분정도 걸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  
가는 아침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나를 기다리는 서준이와 나만 믿고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만오라고 할 때까지 약 32  
 개월을 서준이와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가끔씩 전화하며 반가운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제는 엄마 집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방학 때면 엄마네 가서 많이 지내다 오기도 한다고  
 자랑하는 서준이를 보면서, 하루빨리 부모님 마음이 하나 되어 서준  
 이가 그 사랑 속에서 맑고 밝게 잘 자라주기만을 기대해본다.

할머니께서는 늘 다리가 아프면서도 그 역센 건축현장의 일을 39  
 살부터 하셨다는데 손은 가마니처럼 역세져 있고, 남자들과 센 일들  
 을 하면서 말속에 늘 욕설이 있어 처음엔 너무 낯설고 듣기가 힘들었  
 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현장 일을 쉬는 날에 할머니께서 풀어내  
 시는 살아온 여정에 대한 말씀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뒤돌아보면..

나의 가정이 화목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맘껏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 아침마다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잠들어 있을 서준이를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그 시간의 여정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활동 수기를 적어본다.

지금은 4학년인 서준이가 아빠처럼 위험한 일 하러 다니지 않고 (같이 일하던 분이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돌아가신 것을 서준이가 알았음.) 열심히 공부해서 양복과 와이셔츠 입고 책상에 앉아서 일할 거라고 말하던 그 때가 눈에 선하다. 부디 서준이가 가진 그 꿈을 향하여 맑은 심성을 늘 간직하면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자라주길...

서준아, 이 글을 적다보니 갑자기 네가 보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해준 것 보다 너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들이었음에 고마웠다, 그리고 사랑한다..









# 아이돌보미수기★



내 등에 날개를 달다

인천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효순 님

매일 매일이 축복입니다

충북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옥연 님





# 내 등에 날개를 달다

인천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효순 님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한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로서 체험수기를 쓴다는 것이 조금은 성급하다 싶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어렵게 시작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만족도 높은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어려운 시작으로 수많은 생각만 거듭하시는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 봅니다.

시할아버님과 시아버님, 시누이, 시동생을 모시는 대가족 결혼생활을 시작으로 하여 이십 여 년을 살림만 하고 살다가 두 딸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아이돌보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것에는 자신이 없어서 고민이



었는데 이용자가정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시간 또한 원하는 여  
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세 시대가 가깝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노후가 걱정이었던 저에게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은 하루를 보람 있고 알차게 생활함과 동시에 정  
년이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하게 되면서 더불어 저의 노후를 밝고 희망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  
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자신감도 부족해서 걱정이 앞섰지  
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 키우듯이 하면 되겠지 하고 다  
독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삼 년 동안 지적장애아동의 도우미 자  
원봉사를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답아주고 넣어주고 하면서 함께 완성해 가  
는 기쁨을 느끼자고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과 선배님, 동기들과의 정보 공유  
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즐거움과 웃음을 안겨주는 아이들의 천진  
난만함 속에서 저도 함께 커갔습니다. 상호교감을 통해 마음도 맑아  
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성장했  
습니다. 이렇게 십 여 년을 열심히 한다면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준전문가로서 훌륭히 교육시킬 수 있  
는 자신감 또한 생겼습니다.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얻으며 그동안 제  
게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아이들과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현서(가명)는 맞벌이 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약



간의 과잉행동장애가 있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적응이 힘들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이유를 알아도 해결 방법을 찾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의 빈자리에 안정감을 잃은 아이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도 현서는 좋아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현서를 위해 여름 내내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면서 친해졌습니다. 현서는 제가 사마귀도 잘 잡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매미와 사마귀가 무서워 처음 잡아봅니다. 현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눈에 띄는 행동들도 줄고 지금은 잘 웃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 가슴을 슬쩍 만지면서 장난을 걸어 오기도 합니다. 귀엽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현서가 가끔 제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자신이 평소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인 토마스 기차 몇 대를 주면서 선생님 딸 가져다주라고 합니다. 대학생 딸에게 주면서 말했더니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공룡 카드 파워1000을 건네면서 파워1000은 정말로 힘이 세서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제게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물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현서의 작은 변화와 교감이 일으키는 가슴 뭉클함과 저도 무언가 해 낼 수 있다는 성취감으로 인한 뿌듯함입니다. 그저 일하는 보람이 아니고 제가 재원으로 쓰



임 받을 수 있구나, 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참 보람을 느끼고는 합니다.

소연이(가명)는 돌쟁이 아기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님께서 평일에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국비지원 미용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휴일에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주말에 서비스 신청을 하십니다.

아기 돌보는 일에 익숙지 않은 것 같아 고민을 하였지만 센터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덕에 인터넷을 찾아 육아공부도 해가며 큰 맘 먹고 지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쁜 소연이와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소연이가 제 무릎에 누워 방긋방긋 웃고, 간식을 먹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젠 소연이 어머님께는 비밀입니다. 제게 착 안겨서 출근하는 엄마를 향해 덤덤하게 손을 흔들 때입니다. 사람은 저만 사랑해 줄 때 제일 행복한 법이지요. 저도 그렇듯이 소연이도 저만 사랑 받을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저와 소연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저처럼 사랑 받을 기회를 여러분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처음 만났던 준서와 연서(가명) 어머님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상호신뢰와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며 무척 고마워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직접 선사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육아휴직을 내고 본인이 직접 아이들



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헤어지기가 아쉬워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따라오는 아이들과 작별하며 슬프게도 첫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 주고 혼자 있어야 하는 텅 빈 집이 아닌 온기가 흐르는 따스한 가정을 아이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아이돌보미인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미 모임을 마치고 동기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간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한껏 웃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힘이 납니다.

간혹 이용자 가정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급히 활동 요청이 오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를 한 후 이용자가 가정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맞추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게 이 일이 직업으로서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이용자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든 한부모 가정이든 맘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일·가정 양립의 수혜자로 제 등에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 매일 매일이 축복입니다

충북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옥연 님



때론 너무 행복했던 시간과 때로는 아쉬웠던 순간들을 남기며 아이돌보미를 시작한지 어느덧 5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저의 이용자 가정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저마다의 기질이 다른 아기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보단 모난 부분을 바라보며 갈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행복하고 부족한 저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채워줘서 제 삶이 제 생활이 변화된 것에 더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



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훌쩍 하늘나라로 떠난 저의 큰아들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근육병을 앓으며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기 1년 반부터 병원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하여 15세 때는 목 절개 수술하여 인공호흡기를 달고 가래 빼는 기계 썩션을 하며,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고, 음식은 부드럽게 해 줘야만 먹을 수 있고, 소변변을 받아내며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그래도 전 아들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매일 15살이나 되는 아들을 업고 마트며, 시장이며 안돌아 다닌 곳이 없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서울 세브란스라서 오가기가 힘드니 교수님이 아예 간호사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집에서 주사를 놓고 썩션도 하고 목 드레싱 소독을 하며 잠시도 아이의 옆을 떠날 수 없어 밤에도 깊은 잠을 잔적도 없었는데 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폐가 다 굳어서 더 이상 호흡기도 힘들어 하던 날 훌쩍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가족 남편, 작은아이는 제 손이 제대로 간 적도 없이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24시간 옆에 있던 아이가 없으니 저는 어쩔 줄 몰라 우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옆에 있는 것 같고, 호흡기 소리가 들리는 듯해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후 이렇게 생활한 지 4년 동안 몸부림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제 눈에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허전함과 ‘내 아이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필요한 누군가의 줄 수 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겠다.’ 기대



와 설렘으로 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이 되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돌보미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아이들이 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줘서 지난 일을 잊고 행복과 사랑스러움에 순간순간이 기적과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용자 가정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통해 제 비워진 마음을 사랑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주로 영아종일제를 했는데 아기가 자라서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서 울기도하고, 참다 참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살짝 가서 문 밖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아이가 연계되어 새로운 아이를 만나면 그 아기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아기가 커가며 재롱을 부리고 귀여운 짓 할 때마다 이 아기는 저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게 보내준 선물’ 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것, 씻기는 것, 아이에 관해 제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만난 아기 중에는 까칠한 아기도 있고, 순한 아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아기들을 저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민한 아기도 떴쟁이 아이도 저에게 예쁜 짓도 하고 귀여움으로 답을 해 줍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하는 말 “밥 먹을 때만이라도 똥 애기 안하며 안 될까?” “아기 응가는 새콤 달콤 맛있는 냄새가 나.” 응가도 너무 예뻐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너무 행복해서 계속 신나게 수다를 떨었나 봅니다.

지금 돌보고 있는 아이를 만난 것은 14년 6월 3개월 때였습니다. 종일제로 만나서 지금은 시간제로 돌봐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잘 먹지도 않고, 깊은 잠도 안자고, 밤에도 잘 안자서 엄마와 저를 애태우더니 지금은 잘 자라서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있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아이는 아직도 까칠하고 성격에 낮가림도 많아 낮선 사람을 보면 제게 달려와 얼굴을 감추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도 많답니다. 아직 말이 서툴러도 손과 발 머리로 의사표현 하는 모습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오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데려온 후 엄마가 오시는 저녁까지 돌봐 주는데, 요즘 말을 배우느라 바쁩니다. 저에게 " 쌤 쌤" 하고, 숫자를 읽고 로보트 조립도 한답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놀이와 트램폴린을 손잡고 같이 뛰며 놀다 간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면, 잠이 와 책을 가져와 읽어 달라고 합니다. 그 땐 같이 누워 책을 읽어주면 강아지 인형을 꼭 안고 잠이 듭니다. 자는 모습이 언제나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전 아이돌보미를 안했으면 무엇을 하며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을까? 지금도 허전함과 힘든 날의 연속이었을 텐데 저의 천사로 소중한 인연으로 와 준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내년에도 봐 주세요.”라고 엄마가 부탁하지만, 서비스가 연계되는 한 저는 매일 웃으면서 아기들을 만나는 설렘과 즐거움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 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귀여운 짓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 주려는지 보잘 것

없던 제가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선생님이란 호칭도 듣고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존중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전 매일 매일이 축복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과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는 아이돌보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밝아진 저를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여보, 그리고 사랑스런 아들, 사랑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라도 전 밝고 씩씩하게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아, 사랑한다.





# 아이돌보미 수기<sup>★</sup>



사랑하는 아이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서울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순 님

아이돌보미, 인생 2막에서 만난 나의 첫 사랑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은경 님





## 사랑하는 아이<sup>☆</sup>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서울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순 님



저는 결혼해서 25년 간 전업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막아들의 맘며느리로 시집와서 두 딸을 교육시키고 정신없이 중년을 보내며 내가 아이돌보미가 될 줄을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연한 기회로 50세에야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여 가정 관리학을 전공하고 밤샘을 하면서 보육교사 공부를 하고 어린이 집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의 소개로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게 되었지요. 그 때 나이가 55세였으니, 내 두 아이를 키웠던 손으로 남의 아이들을 돌보자니 한편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5세에서 9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시간제 근무를 했는데, 때로 어떤 가정은 저를 파출부로 여기며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여 속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간에 맞추어 이집 저집





돌아다니다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빵이나 우유로 식사를 대충 때울 때에는 무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쑥쑥 크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이 부모님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아 아이들의 소식을 받을 때면 얼마나 보람 있고 뿌듯한지요.

때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법, 재미있는 손 놀이를 배우는 것, 놀이 도구를 만드는 수업이 참 즐거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의 후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면 내 자식 키울 때를 생각하면서 어르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노라니 흐뭇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의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아이들이 길에서라도 저를 만나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언제 저희 집에 또 오세요?” 하며 인사할 때는 정말 ‘아 내가 이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저는 한 가정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 가정은 2014년도에 만났던 10개월 된 쌍둥이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의 엄마는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서 7년 동안이나 노력하다가 늦게서야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가 소중한까요? 그 엄마는 수시로 “선생님, 저는 정말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 본 게 없어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선생님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어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애들이 기질이 달라요.”라며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우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요.”하면서 제가 아이 키운 경험도 이야기해 줍니



다. 아이가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으며 성장했을 때, 그 오물조물한 입이 어찌나 귀여운지요. 특히 제가 센터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주고 율동을 해 줄 때, 아이가 웃으며 따라할 때에는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아프지만 말고 잘 자라주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아이네 집으로 가서 체온을 재고 환기를 시키고 온도와 습도를 잽니다. 아이 엄마도 제가 가면 그제서야 씻고 조금이나마 집안 정리를 합니다. ‘또 지난 저녁부터 밤사이에 애들이랑 씨름을 했구나!’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젊은 엄마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이 쌍둥이 녀석들이 어찌나 귀엽게 반기는지, 아침에 제 얼굴을 보면 좋다고 손 사레를 치니 눈에 아른거릴 수 밖에요.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따라 점심쯤 되었는데 두 아이가 모두 이유식을 잘 먹지를 않고 얼굴이 발강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만져보니 살짝 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오르더니 아이가 울고 징징거리니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아이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사실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 두 명이 동시에 그렇기는 처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기다려 봐도 열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명씩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아래에 소아과가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채고 울기 시작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진땀이 나서 어떻게 병원까지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참! 어떻게 해요? 애가 등에서 설사를 했어요!” 아



이 엄마의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한 아이도 제 등에서 “뿌지직, 뿌지지지지.....” 설사를 합니다. 아이 엄마는 깜짝 놀란 듯,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이렇지요.”

우리는 무언가 통하는 듯이 서로 땀을 흘리며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다행히 이 떡 두꺼비 같은 쌍둥이는 병원에 가서야 열이 잡혔습니다. 설사를 치우고 닦아주느라고 또 아이 엄마는 밑에서 기저귀를 사오고 서로 하나도 정신이 없었지만, 이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사정으로 다른 가정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쌍둥이 가정과는 연락하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때를 생각하면 “휴, 정말 큰일날 뻔 했어!”라고 떠오르면서도, 아이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특히 어린 아이는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나마 그런 사랑을 가정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거창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보이는 일은 아닐지라도 아이들과 가족의 인생에 추억을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돌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가 분유에서 이유식을 먹는 첫 날,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는 날,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간 날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이 닿는 한 계속해서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항상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센터의 선생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돌보미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아늑다운 토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제 맘이 따스해집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 아이돌보미, 인생 2막에서 만난 나의 첫 사랑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은경 님



결혼 전과 결혼 초 몇 년의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로 나  
름 바빠 살면서 세 아이를 성장시키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지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인의 소개로 돌보미 선  
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도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제  
출-면접-선발-양성교육-실습. 단계단계마다 의미가득한 시간들이  
지나고……. 저는 이제,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한지 육개월에 접  
어든……. 차량 운전에 비유하자면 초보돌보미입니다.

돌봄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에 비해  
육개월 활동한 초보돌보미가 필을 들기엔 부끄러운 면도 많지만, 인  
생 2막의 시작에서 경험한 신선한 충격과 가슴저며오는 감동의 순간



이었던 저의 첫 돌봄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이 넷을 둔 비교적 다둥이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곳의 셋째 아이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배정 당시, 센터 팀장님과 담당 선생님께서로부터 아이 사정을 전해들은 터라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했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저와 마주한 아이는 한눈에 봐도 몸이 아픈 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가림이 심하다는 엄마 말씀과는 달리, 호수같이 맑고 큰 눈망울로 누굴까?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돌봄아동 동생인 넷째를 출산한지 겨우 2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라 산후회복도 덜 된 상태였으며, 저에게 설명과 동시에 음식 먹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TV휴먼다큐 프로그램에서나 아주 가끔 볼 수 있는, 딱 그 광경이었습니다.

돌봄아동 복부 좌측에 뚫어놓은 관에 튜브를 연결하여 음식물을 투여하였습니다.

그 순간 온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픈 아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왔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 많이 아픈 게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아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새까맣게 타서 재만 남았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니다.

아이는 유기산혈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장애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 한모금도 입으로는 넘길 수 없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도 갇난아기도 하는 배밀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들은 아이 상태에도 돌봄활동이 끝



나고 귀가하며 인터넷으로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살살이 살펴 보았습니다. “유기산혈증” 난생 처음 들어 보는 질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한 명 꼴로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돌봄아동 복부에 장착된 것이 위루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착된 위루관에 튜브를 끼워 음식을 투여하는 일…….

돌봄 이틀째 되는 날, 후반부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울기도 해서 간신히 투여한 음식물이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와르르 토해 나오기도 하루에 몇 번……. 아니면 투여된 음식물이 도중에 역류하는 일도 다반사.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돌봄활동 시 소지하고 다니는 제 가방 안에는 돌보미가 상시 지참해야 할 신분증과 돌봄 수첩 외에, 앞치마 3벌, 여벌옷 2벌, 제법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날이 지날수록 아이를 대하는 저의 노하우도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컨디션이 별로일 때 구토 증세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안 후, 식사 전 30분 정도,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한 30분 정도의 타임. 그 시간엔 아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는 아이 앞에서 유감없이 재롱을 부렸습니다. 어여쁜 아이도 아닌 사람이 부린 재롱이 얼마나 허접했을 텐데도, 까르르 웃어주면…….

좋은 타임을 놓칠세라 식사를 투여합니다.

식사 후엔 부지런히 유모차를 밀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심을 끌만한 장난감이나 책을 펼쳐 보여 행여 중간에 재미없는 장면이 나오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엉뚱발랄한 편집에 들어가 오버액션을 취해 아이의 마음을 흥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여 토하지 않





고 무사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컨디션을 조절시켜 다행히 토하는 증세 없이 음식을 투여해도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 투여 후 얼마 되지 않아 대다수 음식물이 변으로 배출됩니다.

변 상태가 어찌나 묽던지 옷까지 젖는 경우가 많아 씻겨야 할 일이 많았는데, 신경 세포가 무척이나 예민한 질환이다 보니 살갗에 닿는 피부접촉에 씻길 때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제 팔을 있는 힘을 다해 잡고 있는 아이에게 “괜찮아. 선생님이 꼭 안고 하니까 무서워 하지 마. 사랑해~.” 목욕 시간 내내 병아리가 되어 있는 아이에게 통 목욕 대신 목욕 수건에 물을 묻혀 조심조심 장착된 위루관을 피해 닦아줍니다. 마지막은 소독솜으로 위루관 주변을 닦아내어 혹시 모를 감염 방지를 위해 신경 써야 했습니다. 목욕을 마무리 하고 나면 작은 몸집의 아이가 더욱 맑아 보여 마음 한 편이 아려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바빠 흘렀고 아이의 컨디션이 좋아 편안해 보이는 날은 때마침 곱게 피어있는 봄꽃과 연두빛 상큼함도 보여주고파 유모차에 태워 아파트 단지 내로 산책 나갔습니다. “○○아, 이젠 철쭉 꽃이야. 저건 붓꽃이야.”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으로 느낄 거라 믿었고 아이가 평온하다는 게 기쁘고 가슴 벅했습니다.

어느날 돌봄아동 엄마께서 “선생님, 이제 우리 셋째 아이가 많이 좋아졌으니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선생님은 우리 넷째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셋째 아이는 걸을 수도 없고 입으로 먹을 수도 없지만, 엄마가 어린이집을 선택한 건 점보의자에 혹은 유모차에 앉아만 있다 오더라도 또래 집단 아





이들을 보고 얻어올 수 있는 모방 학습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태워주는 순간 서럽게 울어 안쓰러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 셋째 아이는 어린이집 환경에 잘 적응해가며 친구들을 보고 배운 예쁜 짓도 몇 개 합니다.

저는 그 가정과 다시 연계가 되어 지금 넷째를 돌보고 있는데, 아침 시간 한 시간 30분 정도는 셋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등원할 때 까지 시간여유가 있어서요. 아침에 만나면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큰 하트를 만들어 사랑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작고 앙증맞은 양손 엄지와 검지를 오므려 작은 하트를 뽕뽕 날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을 안고 있으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톡톡 쳐서 그곳에 내려놓고 자신을 안아달라고 두 팔을 쭉 펼쳐보입니다.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직은 아빠, 엄마, 오빠 뿐이어서 입술로는 저를 부르지 못해도 마음으로, 몸짓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눈물겹도록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은 토하는 일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욱 더 좋아질 것이란 걸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돌보면서 체력소모도 만만치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셨는지 하루하루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돌보미로 시작한 인생 2막에서 만난 나의 첫사랑. 먼 훗날까지 많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맑디 맑은 하얀 천사. 추운 겨울 뒤편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 두 팔 벌려 기지개를 활짝 켜 보렴…….”

미약한 다짐을 보람으로 가득 채우는데 일조를 해주신 센터 팀장



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소지하고 다니는  
돌봄수첩 첫 장에 새겨둔 글귀를 마지막에 옮기며 두서없는 글을 마  
무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열정 없이 얻는 보람 또한 없지  
않겠는가”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태석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연락처 Tel. 02-3479-7600, Fax. 02-3479-7699  
홈페이지 [www.kihf.or.kr](http://www.kihf.or.kr)  
편집·인쇄 (주)씨아이알 TEL.: 02-2275-8603, FAX: 02-2265-9394

ISBN 979-11-5610-279-3 (03330)

2016-KIHF-054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